

퀘스트 선본, 교양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노하우 선본, 최대 6학점 학점지우개제 추진

김민영 기자 myk5060@khu.ac.kr

이서현 기자 is4203850@khu.ac.kr

총학생회 토론회

【서울】대학주보·대학의소리방 송국·영어신문사 학내 3개 언론사 가 함께 주관한 제58대 총학생회 선 거 후보자 토론회 '2026 경희의 선택'이 지난 20일 치러졌다.

KHU:EST(퀘스트) 선본과 KnowHow(노하우) 선본의 정·부 후보가 상대 진영의 공약을 두고 치 열한 공방전을 벌였다.

공청회 자리에는 퀘스트 선본의 정종원(Hospitality경영학 2021) 정 후보와 손예지(미디어학 2024) 부 후보, 노하우 선본의 공선진(행정학 2022) 정후보와 성지창(약학 2022) 부후보가 참여했다. 토론회는 후보 자 정견 발표, 양측 후보자 자질 검 증 및 선거운동본부 공약 점검, 언 론사 질의응답, 방청객 질의응답,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.

퀘스트 '교양과목 절대평가' 노하우 '학점 지우개 제도'

퀘스트 선본은 ▲교양과목 절대 평가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 다. 절대평가 전환 도입이 어렵다면 '역량중심평가'로 대체하는 논의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. 역량중심평 가란 학생 역량을 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다. 다만 과목마다 일 일이 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. 정 정후보는 "해외 대 학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량 또는 정 성평가 사이에서 학생 불이익이 없 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"이라 말했다.

노하우 선본은 최대 6학점을 삭 제할 수 있도록 하는 ▲학점 지우개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. 공 정후보는 "필수교양·전공필수·전 공기초·교직이수 과목 등 졸업요건 에 영향을 주는 과목은 제외할 것" 이라고 설명했다. 또다른 주요 공약 은 ▲동대문구 청년 '만원주택'이 다. 동작구의 만원주택(양녕청년주 택)을 참고한 것으로, 무주택 청년 을 대상 월 1만 원으로 거주 공간 확 보를 돕는다.

학점 인플레이션 및 예산 확보 치열한 논의 오가



퀘스트 선본은 '교양과목 절대평가 전환'을, 노하우 선본은 '학점 지우개 제도'를 공약으로 내세웠다.

(사진=박류빈 기자)



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. (사진=박류빈 기자)

퀘스트 선본과 노하우 선본은 학 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. 두 선본의 '교양과목 절 대평가 전환'과 '학점 지우개 제도' 공약 모두 학점 인플레이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.

퀘스트 손 부후보는 성적 인플레 이션을 우려하는 언론 질의에 "절대 평가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좋 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 다"라며 "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 해야 하는 것은 같다"고 답했다.

학점 삭제에 따른 학점 인플레 이션 문제에 대해 노하우 공 정후보는 "무분별한 학점 삭제를 막기 위해 5 학기 이수 이후에만 학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을 두었다" 고 설명했다.

한편, 양 선본은 예산 확보에 대 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. 퀘 스트 선본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▲대운동장 잔디화 예산 마련에 대 해 퀘스트 정 정후보는 "한국외대 와 서울시립대 역시 동대문구 내 대 학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잔디화 를 추진했다"고 설명했다.

대운동장 잔디화는 2024년 소통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, 학교 측은 사업 예산규모가 적지않 아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. 한국외대는 약 7억 원의 예산으로 대운동장 잔디화를

완료했다.

노하우 선본의 '만원주택' 공약 역시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를 받았 다. 이에 노하우 공 정후보는 "우선 총학생회와 동대문구청 사이의 공 식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, 학생들의 부담을 구청에 전달하는 것이 첫 단 계"라고 밝혔다. 이어 "동작구의 사 레처럼 동대문구에 지자체 차원의 재정 구조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" 고 덧붙였다.

공약은 내세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

퀘스트 선본의 주요 공약인 ▲교 양과목 절대평가 도입 ▲대운동장 잔디화 ▲(구)건물명 변경 시행은 역대 총학이 반복해서 제시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이다.

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은 양캠 후파 입장 차 조율과 성적평가 방식 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. 또 대 운동장 잔디화는 예산 조달이 선행 돼야 한다. 지난 6월 열린 소통간담 회에서 본부는 (구)한외대나 (구)이 과대 같은 건물은 특정 단과대가 아 닌 다양한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 고 있어 특정 학과의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. 퀘스트 정 정후보는 "건물의 용도와 상징 성을 총학 차원에서 발굴하고 건물

명을 제안하겠다"고 의지를 밝혔다.

노하우 선본의 만원주택 공약 역 시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다. 노하 우 선본이 참고한 동작구 만원주택 이 경우 100% 출자해 만든 '대한민 국동작주식회사'의 수익금을 토대 로 한다.

그러나 동대문구는 해당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 임대료 지원 을 위한 재원 마련 체계 구축이 우 선 필요하다.

노하우 성 부후보는 "회기 주거 실태를 분석한 제안서를 동대문구 의회에 전달했다"며 "내년 추경 예 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 의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"고 설명했다. 만원주택이 실 제로 조성된다 하더라도,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 어질지 지켜봐야 한다.

최종발언에서 퀘스트 정 정후보 는 "학생 사회가 반복해 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"며 "문제를 피 하지 않고 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"고 말했다. 공 정후보는 "경희 구성원의 오늘과 내일의 실질 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말이 아 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,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 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.한편,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는 24일 부터 사흘간 진행된다.